

인천민주화운동 사료전시회

2016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활동보고회

끝나지 않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역사 앞에서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 오후 7시

장 소 | 인천여성가족재단 전시실(부평구청 건너편)

사료전시 | 12월 20일(화) ~ 12월 24일(토)

※ 전시 관람 시간 | 낮 12시 ~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주관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협력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in,
도시산업선교회 기념관, 다인아트, 인천환경운동연합, 하인호, 한만송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베여 있는 자랑스러운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시하면서



조성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2013년 인천여성노동운동 사료전시회 <민들레, 아픔으로 피다> 개최에 이어 2016년 인천 민주화운동 사료전시회 <끝나지 않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역사 앞에서>를 개최하게 되어 그 저 기쁩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개소 이후 3년 6개월 동안 모아 온 사료들을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전부 들쳐 보면서 고생스러움에 앞서 인천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족적들이 새삼 가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나 일들이라 하더라도 인천시민 앞에 펼쳐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 최근 정국을 흔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는 위대한 촛불의 힘들은 바로 인천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이 또 다른 원천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30년이 넘게 지금까지 변함 없이 우리 곁을 지키면서 때로는 촛불을 밝히고, 때로는 추운 거리에서 서명전이나 피켓팅 등으로 시민들과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자랑스러운 인천민주화운동의 사료들이 많이 유실되었거나 아직 센터에 입수되지 못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분야들이 잘 살려지지 못한 점, 그나마 전시회 공간도 협소하여 센터에 소장된 사료들이 충분하게 전시되지 못한 점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올해 들어 센터 사업이 두 번이나 종료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넓고 큰 전시 공간도 미리 확보하지 못했고, 전시회 준비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게나마 인천시민들 앞에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역사 사료들을 내놓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인천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인천빈민연합, 도시산업선교회 기념관, 그리고 인천in, 한만송기자, 하인호 선생님께서 부족한 역사 사료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다인아트 윤미경 대표, 부평역사박물관 김현석 전 연구위원님도 수고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회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회가 인천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움을 확인하고, 희망의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힘과 정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운동은 계양산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었다. 계양산은 해발 395m로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 내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인천 생태녹지축의 중심이다. 자연생태계도 우수하여 고라니, 너구리, 반딧불이, 도롱뇽, 맹꽁이 등을 발견할 수 있고 하루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는 도심 속 산이다. 계양산은 인천 최대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오던 중, 1989년 대양개발이 계양산 일대에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대양개발은 첫 시도가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92년과 1999년 다시 개발계획을 추진해 보았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모두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1년 10월 계양산 개발에 반대하며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해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동안 잠잠하던 계양산 개발 시도는 2005년 계양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떠올랐다. 같은 해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 소유 부지에 골프장을 포함한 종합레저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안’을 계양구에 제출하였고, 이후 계양산 골프장 저지 운동이 인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2006년 8월, 시민들은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나갔으며 10월 26일부터 2007년 5월 23일까지 210일간 신정은과 윤인중의 ‘나무 위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계양산 보전을 위한 한 평 사기 운동본부’를 공식 발족시켜 보다 적극적인 계양산 보전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중이다.

년도	월. 일	내용
1991	10. 11	골프장 조성 등 계양산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1992	01. 24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결성대회’ 개최
	03. 31	계양산에 대규모 위락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대양개발에 대해 불법 벌목 등을 이유로 인천지검에 고발함
	06. 06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부평역 광장부터 계양산 입구까지 ‘계양산살리기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2006	05.01	롯데건설,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계양구청에 제출
	06.05	환경단체, 계양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 개최
	08.09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
	08.10-11.06	시청 앞 1인시위
	09.23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역사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계양구민대책위 발족
	10.26	계양산 나무 위 시위 시작
	11.23-12.21	삼보일배 (매주 목요일)
	11.07-12.22	시청앞 천막농성
	12.20	1차 나무위 시위 종료(신정은) 2차 나무위 시위(윤인중)
2007	01.18	롯데규탄 기자회견 및 신격호 자택 항의방문
	01.30	롯데규탄 기자회견(서울 롯데백화점)
	05.23	나무 위 시위 종료(210일)
2008	02.20	계양산 소나무숲 방화흔적 주민제보
	01.01-03.04	촛불집회 34회 진행
	10.01	계양산 골프장 반대. 100인이 이어가는 100일 단식농성 기자회견
2009	02.17	계양산 골프장 반대. 경인운하 반대1차 촛불문화제
	06.21	<사랑한다, 계양산> 시민행동의날(계양구청까지 걷기)
2010	07. 21	‘계양산 보전을 위한 한 평 사기 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 개최
	08.28-09.12	<2010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연인원 약 700여명 참석
	11.09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종단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발표
2011	01.21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종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열람 공고
	07.16	‘계양산 보전을 위한 한 평 사기 운동본부’ 공식 발족
	10.06	계양산 6년활동백서 발간 토론회 및 기념식



01 삼보일배하는 시민활동가들 02 계양산 숲속 음악회 03 계양산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04 계양산 골프장 반대를 위한 투표 실시 홍보전
05 계양산 보전을 위한 계양산 땅 한 평 사기 운동 본부 발대식 06 계양산 개발반대를 염원하는 시민촛불집회
07 계양산 개발을 반대하는 나무 위 농성장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진행된 한국반핵운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인천 시민사회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 핵·대·협」과 덕적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덕적도반대투쟁위원회가 운동을 이끌었다. 정부의 핵폐기장 설치 시도는 1989년 경북 영덕에서 최초로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1990년과 1992년 충청남도 안면도를 대상으로 재차 진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1994년 경북 울진에 설치하려던 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 후 네 번째 부지로 선택한 곳이 굴업도였다. 굴업도 실패 이후 정부는 3,000억 원의 지원 조건을 제시해 유치공모를 하여 2003년 부안 위도를 선정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005년 경주로 최종 부지가 선정됐다.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200여 일간 농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여 명이 구속되었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반대운동을 함께 했던 주민 1명이 시위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계획은 굴업도에 활성단층이 발견되며 철회되어 1996년 12월 30일, 정부가 굴업도에 지정했던 방사선물질 처리장 지정고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년도	월. 일	내용
1994	11.22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결성
	12.15	MBC뉴스,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 확정 보도
	12.19	정부, 핵폐기장 최종후보지로 3곳(굴업도, 울진, 영일)을 압축 발표
	12.20	'덕적면 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차두회) 결성, 주민 200명 1차 집회
	12.22	- 김시중 과기처장관, 굴업도를 핵폐기물 최종 후보지로 발표 - 14개 중대 규모의 '인천경비단' 창설
	12.23	덕적주민, 인천시민 300여명 인천시민회관 주안역까지 가두시위
	12.26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건설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 1차 회의 개최 - 덕적도 주민 및 인천시민 300여명 인천 시위 중 인천경비단과 충돌.
	12.27	서울프레스센터 공개토론회 개최, 덕적주민 200명 참석후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
	12.28	전국반핵운동본부 탑골공원에서 서울 1차 핵폐기장 반대집회
1995	01.09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 및 성명서 발표
	01.13	전국반핵운동본부, 정부종합청사앞 서울 1차 핵폐기장 반대집회. 이후 인천 웅진구청 항의방문 중 김계월 여사 사망
	01.15	전국반핵운동본부 인천 '고 김계월 여사 사인규명 및 폭력경찰 규탄 집회' 개최
	01.17	고 김계월 여사 장례식
	01.24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결성대회
	01.25	과기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지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01.26	인천 핵대협, 과기처 공청회 전면 무효 성명서 발표
	02.15	237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굴업도 핵폐기장 확정, 덕적도 배후 연구단지 지정의결
	02.27	과기처 장관, 관보에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
	02.28	인천 핵대협, 정부의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03.03	덕적도 면사무소 앞, 주민 300명 시위, 최루탄-투석 공방
	03.15	인천 가톨릭회관 텐트농성 돌입
	03.26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건설 철회를 위한 제1차 인천시민결기대회」대회 개최.
	05.23	민주당 진상조사단 구성
	09.19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활동보고 대회 개최
	10.07	과기처 차관, 활성단층 발견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재검토 기자회견
	11.30	과기처,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지정고시를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
	12.16	정부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 해제 의결



01 잘 보존되어 있는 굴업도 큰말해수욕장 02 굴업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섰더라면 이 동물들이 살아있었을까 03 굴업도 04 시민회관 앞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을 반대하는 굴업도 주민들 05 천해의 황금어장에 핵폐기장이 웬말이나! 06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반대운동 07 한국을 방문한 그린피스 대원들과의 간담회 08 굴업도 동네 어르신들도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 반대”

노동운동(80년 - 90년대)

1987년 7월 17일,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했다. 학생들은 복학하고 해직교사는 복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공장 복귀는 외면 당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민중의 민주적 재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노동자 복직'과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구호가 공장 주변을 감싸며 휘돌았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조합 없이는 쟁취하기 힘든 일이었다. 같은 해 8월 10일에는 5개 단체가 모여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87년과 1988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작업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이 추진됐다. 시대에 단련된 노동자들이 수많은 조직을 발전시키며 1987년과 1988년의 노동자대투쟁을 이끌어 갔다. 1990년대를 넘어서도 해고노동자들은 계속 공장 밖으로 밀려났다. 권력의 반노동자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연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 체제를 변화시키며 대응을 강화해 갔고 노동운동 전선은 통일돼 갔다. 드디어 1988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뒤를 이어 1995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한다.



01 동서식품 노조 민주화 투쟁 - 유령노조 박살 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02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추진본부 발대식 03 인노협 깃발 아래 대동단결 대동투쟁! 04 쿼트악기 노동조합 - 휴업조치 철회하고 민주노조 탄압말라 05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가두투쟁 06 경동산업(키친아트)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투쟁 08 대흥기계노동조합 - 90년 임금인상 완전쟁취! 09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해방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운동

1985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 간 이어진 대우자동차 파업투쟁은 학생출신 노동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연대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임금인상투쟁이자 노조민주화운동이었다. 대우자동차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반조합적, 어용적 체질’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1984년 12월 24일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호소해 나갔다.

1985년 4월 8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회사측이 단체교섭 연기를 통보하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동의하자 제1차 비상조합원 총회를 열고 다음 3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1) 대의원들이 선정한 홍영표 대의원을 단체교섭에 포함, 2) 18.7%와 제수당 관철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3) 단체교섭일은 11일로 결정.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요구에 굴복해 3개 요구사항에 대한 결의를 표명한 후 단체교섭이 시작되었으나 단체교섭 결과를 받아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교섭 내용에 반발하며 4월 16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4월 25일까지 10일 간 계속된 파업 투쟁은 인천공장, 부산공장까지 확산되었고, 결국 회사 측과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종료되었다.

년도	월. 일	내용
1971	05.18	전국금속노조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부평공장분회 결성
	06.18	지부 승격 노동조합 대회 개최
1983	01.10	전국금속노조연맹 대우자동차 노동조합<명칭변경>
1984	12.24	노동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 발족
1985	04.15	임금교섭 결렬
	04.16	2,500명 노동자 파업 돌입
	04.19	식당에서 기술센터로 옮겨 철야농성 돌입
	04.21	회사 측, 기본급 8.7% 등 협상 제시했으나 결렬
	04.24	김우중과 홍영표 단독협상으로 기본급 10% 인상 등 협상 타결
1987	06.28	대우자동차 원직복직추진 노동자회 준비위원회 결성
	07.28	사무직 5급 사원 '5동회' 결성
	08.10	대우자동차 민주노조 쟁취위원회 개최, 4,000여 노동자 참석
	08.27	구속노동자 석방 등 기술센터 농성
	08.29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 지게차로 사측 저지 무력화
	08.31	대우자동차 노동자 1,500명, 청천동 가두시위
	09.01	평조합원과 김우중 회장 협상 결렬, 가두진출 경찰과 대치 후 농성
	09.02	경찰과 대치 및 가두진출
	09.04	인천시경 17개 중대 회사 내 투입
	09.05	노동자 출근 후 전문 돌파 시도, 강제해산 당함
	09.09	조업현장에 경찰병력 배치
	09.24	노동조합 위원장 직선제 통과
	10.31	새 집행부 단체협약 체결



01 동인천역 광장에서 인천지역 노동자들과 거리시위를 벌리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02 노동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투쟁
03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집회 04 해고자 원직복직 즉각 수용하라 05 투쟁하면 쟁취하고 방관하면 노예된다
06 아빠! 힘내세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 07 고용안정 단결투쟁을 외치면 거리 시위

부평 미군부대 반환 운동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륙한 미군은 부평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을 접수하며 ‘애스컴 시티(ASCOM City)’란 이름을 붙였다. 애스컴(ASCOM)은 ‘주한미육군군수지원사령부(Army Support Command Korea)’의 약자다. 1973년 애스컴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며 부평에는 지금의 캠프 마켓(Camp Market)만 남게 되었다.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96년 5월 17일, 인천지역사회는 부평역에서 개최된 ‘5·18광주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을 통해 부평미군기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선언이 공식적으로 선포됐다.

같은 해 5월 2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가 부평역과 동암역 앞 등지에서 ‘부평 미군부대 터 되찾기 서명운동’을 벌이며 본격적인 반환운동에 돌입했으며 5월 24일에는 인천연합 외 인천지역 6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인천시민모임(가칭)(시민모임)’의 결성을 추진해 나갔다. 이후 1996년 9월 20일, ‘우리땅 미군부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시민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와는 별도로 1997년 3월 10일 부평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공추협)’ 결성되었다. 공추협은 앞서 1996년 3월 5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바 있다. 두 단체는 운동의 목표와 방식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반환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갔다.

부평미군기지는 2013년 7월 31일, 2013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캠프마켓)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년도	월. 일	내용
1996	04.28	부평미군부대 대책을 위한 산곡. 부평동 주민모임 개최
	05.18	5.18민중대회 기념식장에서 미군부대이전 공식선포
	09.20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발족 반환운동 시작 : 서명운동, 공청회, 시민 걷기 대회, 토요집회 등 시민들의 참여로 시작
1997	03.10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공추협〉 창립대회
	05.14	인천시민걷기대회 개최
2000	05.25	부평미군기지 반환 천막농성 시작 (674일 지속) 릴레이 단식농성, 24시간 시민 감시단 활동, 매주 토요집회, 천막농성 인천시민 강강술래, 인천시민선언운동, 10.30 인간띠잇기 대회
2001	08.11	인간띠잇기 행사
2002	03.29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반환 결정 발표
	04.14	부평미군기지 반환기념 인천시민 대동함마당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인천시민 공청회
2005	11.23	천일파 송병준의 후손 ‘땅 찾기 소송’ 패소
2006	02.09	반환 미군주둔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07	12.03	부평미군기지 활용 민간협의회 구성
2008	01.08	부평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1차 기초조사 실시
2009	12.16	부평미군기지 주변 2차 환경오염 조사 결과 발표 - 주변 토양 오염등 심각
	12.17	인천시민회의-민주노동당 캠프마켓 주변 환경오염 원인규명과 조기폐쇄 기자회견
2010	02.03	행정안전부 부평 미군부대 산업단지 유치 검토 발표



01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들의 171일째 릴레이 단식투쟁 02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면 거리에서 연좌농성
03 1996년 통일맞이 인천시민문화축전 04 미군기지 폐차장 전경 05 부평미군부대 인간 띠잇기 대회 06 미군기지 반대운동, 경찰과의 대치
07 부평 주한 미군기지의 전경

선인학원 정상화 운동

선인학원은 백인엽이 1958년 성광학원을 인수해 1964년 '선인'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법인이다. 1980년 4월, 선인학원 내에 있던 향도실업고등학교,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학생 1,500여 명이 수업을 거부하며 '실습시간 연장, 보충수업료 인하, 재단의 간섭 반대, 무능교사 퇴진' 등 8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15년 가까이 학원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인천대학교를 비롯한 선인학원 산하 학교들이 시립화되어 새 출발을 시작했다.

선인학원 민주화 운동의 발단은 1981년 부정 편입학 등과 관련해 구속된 백인엽이 1985년 다시 학교로 복귀한 일이다. 교수, 교사, 학생들은 백인엽을 포함한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줄기차게 시위를 벌여왔다. 선인학원 산하 12개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범선인 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문교부는 1986년 시위가 멈추지 않는 인천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다.

선인학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92년 1월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여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며 사태 수습의 전면에 나섰다. 같은 해 4월 '시립 및 공립화를 위한 인천 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이 시작됐고, 1993년 인천시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은 시립화하고 산하 초·중·고등학교는 공립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4년 3월 1일, 드디어 선인학원은 시·공립화하며 새롭게 출발하였다. 선인학원 민주화투쟁은 학원 민주화에 대한 선인학원 교수, 교사, 학생들의 멈추지 않는 열망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만나 이룬 성과였다. 인천교육사는 물론, 인천시민사회운동사는 선인학원 민주화 투쟁을 기점으로 하나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

년도	월. 일	내용
1947	10.20	성광중학교 설립(설립자 : 허섭)
1958	08.10	백인엽, 성광학원 인수
1964	01.24	학교법인 선인학원으로 법인명칭 변경
1980	04. 23	선인학원 내 향도실업고등학교,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학생 1500여 명, 수업을 거부한 채 대운동장에 모여 '실습시간 연장, 보충수업료 인하, 재단의 간섭 반대, 무능교사 퇴진' 등 8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농성 전개
	03.18	백인엽, 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03.22	백인엽, 학교법인 산하 16개 학교 국가 헌납서 제출
1985	05.08	전체교수, 총학생회 학원민주화 추진관련 결의문 채택
1986	10.14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 학생들이 '백인엽 퇴진, 학원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 돌입
	10.31	문교부, 인천대학교에 휴교령
1987	04.19	4.19민주혁명 기념 횃불행진
	06.0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규탄대회, 기말고사 거부 및 평화 대행진
	12.18	노대우 부정당선 규탄 및 부정선거 규탄대회
1988	02.06	민중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03.24	민중생존권 쟁취 및 노동탄압 규탄대회 진행
1990	09.11	폭우로 송림동 축대 붕괴(23명 사망)
1991	07.15	범 선인학원 정상화 추진협회 결성(공동의장 : 장학식, 장석우, 이세영)
	12.21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3명, 교수협의회 의장 장석우 교수 징계 움직임에 반발해 무기한 철야 농성 돌입

년도	월. 일	내용
1992	02.13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 시민의 모임', 도 화동 성당에서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03.26	선인학원 학생, 교사, 교수 등 2000여 명,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 개최
	04.15	인천대학교 학생들, 집단자퇴 결의
	04.18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결의대회' 개최
	05.09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주안 1동 성당에서 인천시청 앞 광장까지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 진행
	05.25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교수, 교사들, 선인학원 재단사무실에서 학원정상화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06.10	교육부, 선인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06.16	인천대학교, 4월 20일부터 수업을 전면 중단해 오다가 58일만에 부분 수업 재개
1993	06.05	시공립화 교사추진위원회, '선인학원 시공립화 추진지시 성명서' 발표
	06.10	최기선 인천시장, 선인학원 시.공립화 추진 발표
	06.11	선인학원 재산 인천시 기증
	07.12	청와대, 교육부, 인천시장 간 선인학원 시공립화 합의
1994	01.01	선인학원 시립화 인가
	03.01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시립대학 출범, 초, 중, 고등학교 공립학교 출범
	03.11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해단식



01 4만 선인가족 결의대회를 마치고 혈서로 얼룩진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진군하는 학생들의 열기 02 1989년 본관 옥상투쟁 03 1989년 학자투 투쟁 - 퇴진 이사장! 쟁취 학원자주! 04 수업을 거부한 책걸상들 05 심창유 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사발 투쟁까지 마다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남·여의 구별도 없었다 06 1989년 청년세계평화축전참가자대회 07 개강총회에 이은 재단 내 선전전

종교 민주화 운동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에서 종교는 꽤 큰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종교는 노동자들의 벗이자 인도자로서 항상 곁을 지켜 주었다. 인천지역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종교가 노동현장의 현실을 맨눈으로 목도한 계기가 된 일이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이다. 1967년 5월 14일 천주교 강화성당 JOC 회원들의 주도로 섬유노조 심도분회가 결성됐다. 이후 강화도 내 21개 직물회사들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강화성당 미카엘 신부를 탄압하자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대응해 나갔다. 결국 노동자들은 복직되고 회사측은 백기를 들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종교인들의 저항은 계속 이어졌다. 1974년 제2차 인혁당사건이 발생하자 인천교구 부주교였던 시노트 신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다가 추방당하였고, 조지 오글 목사 역시 인혁당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추방당하였다.

조지 오글 목사는 이미 1961년 10월, 인천산업전도위원회를 조직해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인천산업전도위원회는 후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로 이름을 바꾼 후 '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도활동'과 '민주화를 위한 화해자'로서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활동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계승되어 민주화 운동의 동행자로서 자리를 지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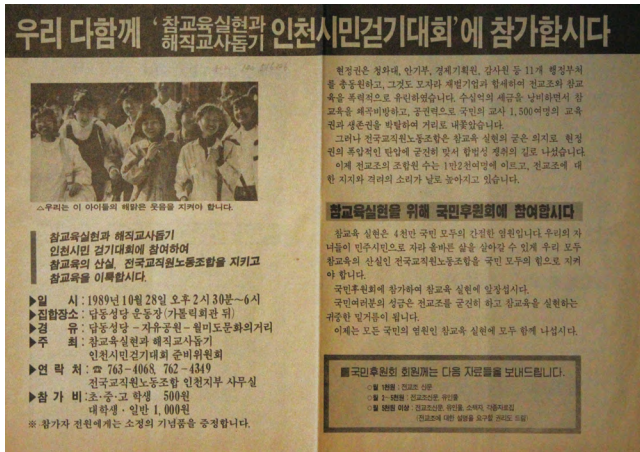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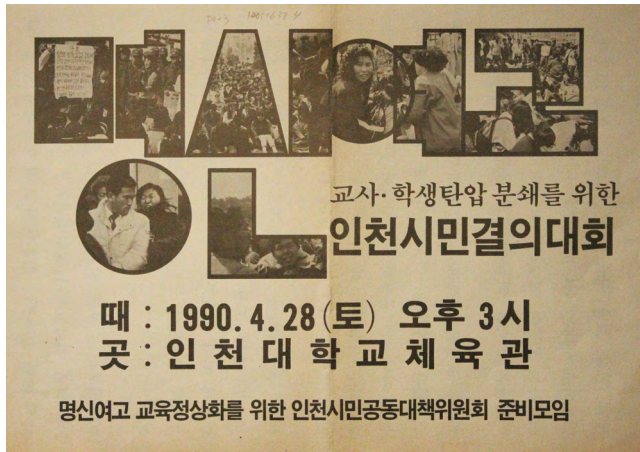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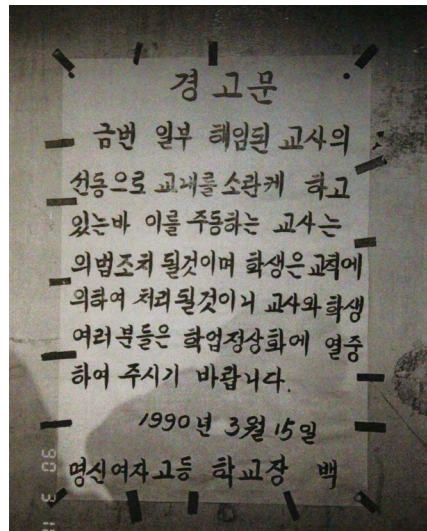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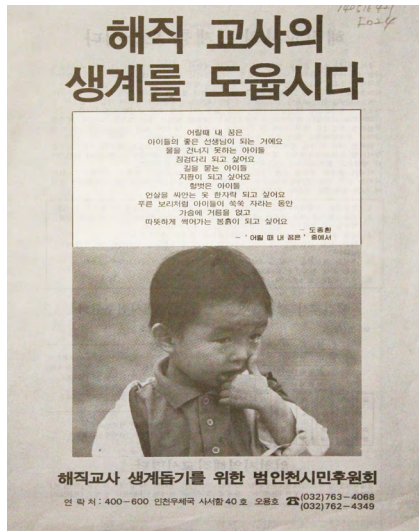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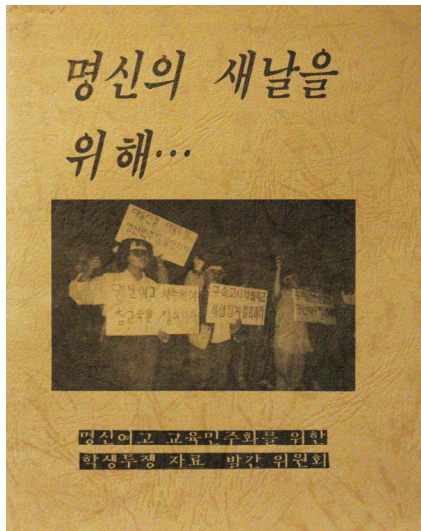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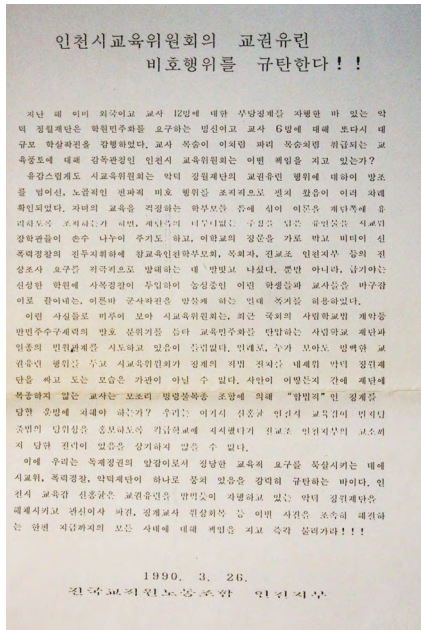


01 조지 오글 목사 취임 환영식 기도회 02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추방되는 조지 오글 목사 03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위원회 주변 전경
04 조지 오글 목사 취임 환영식 기도회 - 그의 가족과 함께 05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모습 06 통일방직 노동조합운동 발간 기념식
07 김수환 추기경, 농성 중인 통일방직 노동자들과의 면담 08 경찰에 연행되는 통일방직 노동자들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등을 경험한 전국의 교사들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1987년 9월 결성된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5월 28일, 한양대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 주최로 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전국에 지부를 조직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했고 이 해를 흔히 ‘참교육 원년’이라고 부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이후에는 합법화 투쟁이 계속 전개되어 1999년 7월 교원노조의 활동이 전면 합법화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비슷한 시기에「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보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1989년 6월 10일 전교조 인천지부를 설립하고, 9월 3일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지역 학부모회」가 결성됐고, 학생들도 교육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여 1990년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단의 전횡에 반발하며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년도	월. 일	내용
1987	09.25	- 인천교사협의회 창립 -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출범
	10.12	운봉공업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출범
1989	01.26	성현고등학교, 사학민주화 투쟁 시작
	04.04	인천사립교사협의회 창립
	06.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창립
	05.02	인천공립중등교사협의회 창립
	08.10	참교육을 지지하는 학부모 모임, 주안5동 성당에서 「선생님에게 노조를 아이들에게 참교육을」이라는 주제로 모임 개최
	09.03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지역 학부모회, 당동 기림리교회 5층 강당에서 창립대회 개최
	09.03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지역 학부모회 결성
1990	01.05	명신여자고등학교 명신교사협의회 회원 최미희·이원주 교사 해임
	03.26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 휴업령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인천시교육위원회 앞에서 항의 농성 시작.
	04.01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김대중 총재 시국강연에 참여해 홍보활동
	04.04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40여 명 평민당사에 모여 농성
	04.09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 교무실 등을 점거한 후 11시 30분경 해산
	04.20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구속교사 석방 및 학생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시작



철거 지역 주민 운동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시미관 등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거지들이 철거를 당하고 주민들은 이주를 했다. 공공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개발과 철거는 도시 빈민들에게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 채 급하게 진행됐다.

1987년 10월 15일, 학익동 산540번지 일대 50여 채의 집들과 1988년 5월 17일 간석동 산71번지 판잣집이 철거를 당하는 등 철거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거주민들은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반대하며 저항하였다. 철거민들은 법률지식도 없었고 이주 후의 대비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철거민들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올라와 공장일이나 막노동, 식당일 등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1988년 6월 9일 인천시철거민협의회가 발족했으며 1988년 10월 16일,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등이 결성됐다.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십정동 철거대책위원회, 일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만수2동 유신마을 철거민 대책위원회 등이 발대식을 갖는다.

년도	월. 일	내용
1985	10.19	만석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0여 동 강제 철거. 주민들이 철거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수가 부상당함
	11.23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천지역의 철거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 발표.
1987	10.15	남구 학익동 산540번지 일대 50여 채 가옥 주민들, 포클레인을 동원한 1000여 명의 철거반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당함
1988	05.17	간석동 산71번지 판잣집 5채 강제 철거
	05.19	학익1동 주민 120여 명, 시청 앞 광장을 점거하고 '대책 없는 강제철거 반대' 등을 요구하며 농성
	06.09	인천시 철거민협의회 발족
	06.12	인천지역 철거민 30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철거 반대 및 구속자 석방 결의대회」 개최
1989	08.01	주안5동 산동네 강제철거로 인하여 세입자 100여 세대가 만수동 중국인 묘지 터로 집단 이주
1992	01.16	십정동 철거대책위원회 결성
	04.05	일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발족식
	06.13	만수2동 유신마을 철거민 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08.17	연희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결성
1993	10.23	학익동 510번지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1994	03.27	간석동 붉은마을 철거지역에서 '간석1동 철거주민 대책위원회' 발대식
	04.13	학익동 삼능주택 철거대책위원회, 학익동 510번지 공터에서 「학익동 삼능사택 강제철거 규탄대회」 개최
	12.11	논현·도림동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01 철거 직전 마을 02 인천시청 앞 고 신현기 열사 시신탈취 규탄 03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주거권을 쟁취하자” - 만월산 철거대책위원회 0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만수동 철대위

학생 민주화 운동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공포됐다.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른바 ‘긴조 9호 시대’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1974년 말부터 긴급조치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1975년 4월 10일 개최된 비상학생총회와 시위로 인해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문희탁이 제직, 구속당하고 관련 학생들이 무기정학을 당했으며, 다음 날부터 5월 9일까지 학교는 임시 휴강에 들어갔다. 이후 인천지역 학원가는 긴급조치 9호의 감시 하에서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 1978년이 되어서야 학생들은 유신철폐를 요구하며 다시 억압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이 해 9월, 조용호, 곽한왕, 김명식 등이 ‘인하인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를 주도하였고, 10월과 11월에도 유인물을 살포하며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당한다.

1980년 초, 인천지역 대학가에도 봄이 찾아왔다.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학생들은 2월 18일,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등을 결성하며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을 ‘민주화대행진의 날’로 정하고 인천교육대학교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5월 15일에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교육대학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5월 17일 오히려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단행된다. 이후 1987년까지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며 군사정권에 저항했다.

년도	월. 일	내용	년도	월. 일	내용
1974	11.06	인하대학교 학생 1천여 명,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민주헌정질서 확립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 채택	1987	02.17	인하대 총학생회 박종철 추모식 및 고문규탄대회
1975	04.10	인하대학교 비상학생총회 개최	1984	03.23	인하대 학원자유화 추진위원회결성 준비위원회 결성
1978	09.28	유신철폐 유인물 1차 살포 및 시위사건	04.11	인하대 학원자유화 추진위원회 학도호국단 성토 대회	
	10.17	유신철폐 유인물 2차 살포사건	05.24	인하대 학추위, 광주항쟁 진상보고대회 및 위령 제 개최	
	11.03	유신철폐 유인물 3차 살포 및 시위사건	10.24	인하대 학자추위 주최 학생회 부활을 위한 공청	
	11.13	유신철폐 유인물 4차 살포 및 시위	10.31	민주화 대행진 기간(10월31일-11월2일)을 정 하고 시위	
1979	10.27	인하대 비상계엄 휴교	11.31	인하대 총학생회 부활	
1980	02.06	인하대 학원사태관련 제작생18명 유기, 무기4명 신학기에 복교	1985	03.20	인하대 총학생회 합법성 쟁취대회
	02.18	인하대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가칭) 결성	04.20	인하대, 성심여대 등 전두환 방미반대 시위	
	05.07	인하대 3천여 명이 대운동장에서 시국관련 선언 문 낭독 및 시위	05.17	인하대, 인천대 연합 광주민중항쟁 5주년기념식	
	05.15	인하대, 인천대, 인천교대 학생 1만 여명 가두시위	05.24	인하대 광주민중항쟁 5주기 추모제	
	05.17	인하대 휴교령	09.18	인하대 학원탄압 저지 투쟁위원회 주관 학원정책 규탄 시위	
1981	05.21	인천제일교회 사건으로 인하대생 문광석 외 3인 구속	10.29	인하대 학생의날 부활2주년 기념 선포식	
	09.03	청진회 소속 민영수 외 2인 구속	11.01	인하대, 인천대, 성심여대 등 민중 생존권 쟁취 연합투쟁대회	
1983	10.06	학원자유화 및 이승만 동상 철거시위			
1986	04.23	인하대 교수 20명 시국선언 선언문 발표			
	05.20	총학생회장 선거 유세 중 "광주학살 원흉 미제축 출하자" 는 가두시위			
	05.27	인하대 전방임소 거부투쟁 4일간 시위			
	10.30	인하대 옹공조직분쇄 및 조국통일 촉진 투쟁위원 회 실천대회			
	11.04	장기집권음모 저지투쟁위원회 및 조국자주통일 촉진투쟁위원회 주최 민중민주화운동 탄압저지 및 옹공 조직 분쇄 투쟁			
	11.26	인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및 신민당 서울대회 에 관한 대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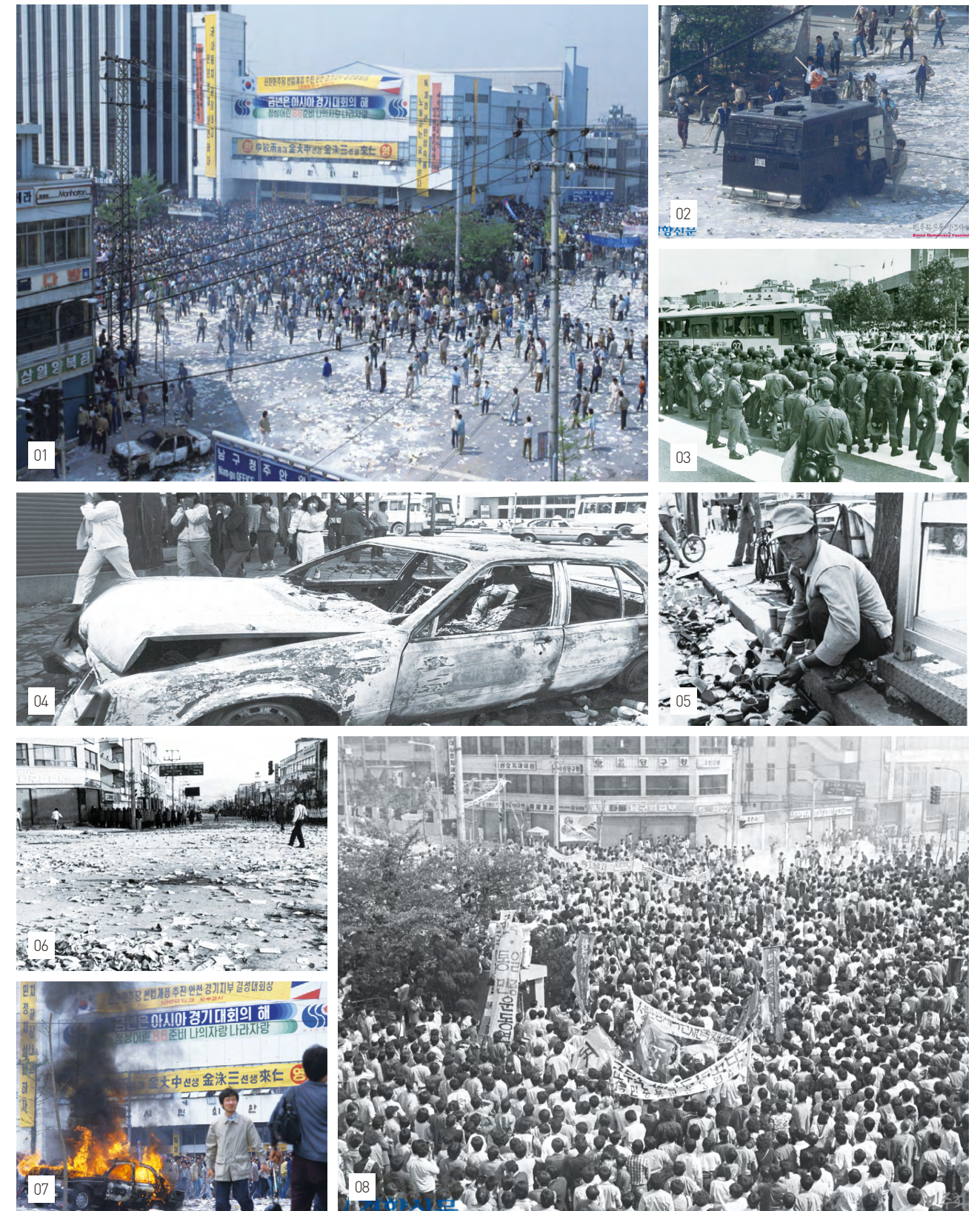


01 1984년 학원자유화추진위원회 출범식 02 1984년 “쟁취하자 민주주의. 관제언론 자폭하라” 03 학원 내 전경이 물러간 후 집회
04 학원 내 야간집회 05 1984년 학원자유화추진위원회 대자보 '민주화의 함성' 06 후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
07 1984년 “쟁취하자 민주주의. 관제언론 자폭하라” 08 민주주의 장례식

인천 5.3민주항쟁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4거리 일대에서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인천지역의 노동자 학생, 시민을 비롯하여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여 전두환 정권의 불법적인 정권연장 음모에 반대하여 펼쳐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검찰은 이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좌경용공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기도로 단정하고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하여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 수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의 시위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은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87년 6월 29일 선언을 발표할 때까지 민주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으며 또 이날의 시위는 이후 6월 항쟁 발발의 불씨가 되었으며 인천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01 시민회관 앞에 모인 시민들 02 경찰 진압차량을 진압하는 순간 03 진압 직전 전투경찰대 04 전소된 차량, 최루탄에 괴로워하는 시민들
05 최루탄 탄피를 수거하는 고물장수 06 유인물과 최루탄 가루로 뒤덮인 주안4거리 07 시민회관 앞, 불에 타는 경찰차량 그리고 박노해 시인
08 민주통일운동연합(민통련) 집회현장

발 행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발 행 일 2016년 12월 20일

주 소 우)22154. 인천 남구 경인로 334-17 1층

전 화 032-862-5353

전 송 032-862-5352

이 메 일 idph@hanmail.net

홈페이지 www.idph.kr

